

법 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경찰법우님들을 만나게 되어 격려의 마음과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최근 취임하신 김정석 청장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많은 경찰불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여법한 봉축법회를 마련하신 것은 신심 가득한 정성으로 여겨지고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연으로 서울시와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가 연꽃향기 가득한 평온하고 행복한 세상이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실천해온 가르침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법행자가 되고 구석구석 자비의 손길을 골고루 전하는 관음행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물러섬이 없는 불퇴전의 신심으로 부처님 제자의 길을 걸어오셨으며, 시민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민중의 지팡이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병이 생기며, 일체중생의 병이 없어지면 자신의 병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민들에게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유마거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대자비’의 정신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 힘든 일을 해결해주는 것 또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경찰은 시민들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벗입니다. 시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이웃이 여러분입니다. 선한 인연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뒤따르는 것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가르침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에는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보살펴주는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중한 업무로 고충이 많고 그러기에 불자로서 수행정진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조금의 틈을 내서라도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의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바로 시민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동료들과 화합을 이루어 즐거운 근무 환경을 가꾸는 일에도 큰 성취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5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